



경남서부지부장 김 광 호
〈태영조경 대표〉

“자연친화적으로 환경파괴 없이 산지의 이용 활용에 모범이 되는 농장”

“임야 포지의 조경수목 굴취, 운반 하는 허가 절차등 산림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방법을 숙지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 주어서 조경수 재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자연생 재배 소나무 조경수가 많은 진주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소나무 반출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과 소나무 반출 업무처리등을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태영조경을 찾아서...

김 해 응 글·사진

이번에 찾아간 농장은 현재 조경수 협회 경남 서부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광호 지부장의 태영조경이다.

김광호 지부장은 본래 경남 의령이 고향이지만 학생 때부터 줄 곳 진주에서 생활하고 그 후 직장 생활을 거쳐 현재 진주에 조경업으로 탄탄한 터를 잡았다.

1976년에 진주농전 임학과를 졸업하고 성립조경이라는 조경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조경관계 경험을 쌓은 후 1995년에 현재의 태영조경회사를 설립 34ha에 달하는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조경 관련 공부를 계속하여 진주산업대학 대학원의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동 대학에서 조경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다.

본 김광호 지부장의 태영조경 농장은 지난 8월호에 소개한 이길영 본 협회 부회장의 대홍조경과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임야 내

자생 수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간벌을 한 후 모양 좋은 소나무를 조경수로 손질하고, 그사이에 각종 조경수와 지피식물을 수하식재하고 임도와 작업로를 지그재그로 개설한 것이나 간벌목을 파쇄 하여 다시금 임야에 살포하여 지력증진을 시킨 것이나 무엇 하나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김광호 지부장 본인 입으로도 대홍조경의 이길영 사장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 여간 고맙지가 않다고 사례를 한다.

특히 임야 그것도 경사가 급한 비탈진 산속에 임도와 작업로를 개설하는 방법과 자연생 소나무를 그대로 두고 조경수로 가꾸는 방법은 그야말로 기발한 착상이라 할 수 있다.

이곳 농장과 이길영사장의 농장의 차이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조경수 양묘방법과 둘째는 임야 규모다.

먼저 소개한 이길영사장의 대홍조경 농장에는 묘목 생산 없이 전량 묘목을 구입 식재하는 방법이고 이곳 김광호 지부장 농장에는 곳곳에 임간 묘포장이 있다. 조그마한 밭을 만들어 양묘 한곳도 있지만 대부분 나무 사이사이를 파헤치고 파종이나 삼목상을 만들어 양묘를 하고 있다.

양묘한 묘목은 물론 본 농장에 식재하기 위함이지만 어떤 것은 시험 실습용으로 파종 삼목한 것이 많다. 본인이 실험 하는 것도 있고 현재 가르치고



▲ 농장전경



▲ 농장전경



▲ 농장전경

있는 학생들의 실습과 견학 현장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조경업계의 학구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야 규모 차이는 무엇인가. 이길영 사장의 대홍조경 농장은 54ha가 한곳에 있는 큰 골짜기 전체가 농장인데 반해 이곳 태영조경 농장은 3곳에 분산되어 있다. 그것도 진주시내에서 서로 반대 방향 되는 산청군과 경계지인 미천면 효자리에 17ha, 반대로 대각선 방향인 사천시 곤명면 삼정리에 7ha,



▲ 농장전경



▲ 농장전경



▲ 묘목 및 지피류 생산

은사리에 10ha가 분산되어 자동차로도 1시간은 가야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 운영관리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그래서인가 가장 바라는 것이 한곳에 농장을 합치는 것이 소원이란다. 특히 이곳 진주지역은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한지가 오래되어 병충해 방제가 아주 중대한 것인데 농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여간 불편할 수가 없다 한다. 그렇다고 큰 필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도 없고 있다 해도 현 상태에서 이식하여 새로 조성 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처음에는 10ha만 해도 넉넉할 것이라 생각 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도 나고 또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30~50ha 정도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장만하다 보니 3곳에 분산되게 되었다.

본 농장의 조경수 중 특징인 것은 향토수종인 종가시, 붉가시등, 가시나무류, 목서류, 동백류, 아왜나무등 많은 난대 수종의 수하식재가 가장 많지만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반송처럼 둥근형으로 기르는 것과, 또 하나 요즘 웰빙 식품으로 유행하는 차나무를 소나무 사이에 식재하여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광호 지부장은 1995년부터 본 조경수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몇

해째 서부 경남지역 지부장을 맡아 일 해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진주에 경남 조경수 유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등 조경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특히 조경수 재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포지를 장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개발 조경수 재배 포지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 받는 방법과 임야 포지의 조경수목 굴취, 운반 하는 허가 절차등 산림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방법을 숙지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 주어서 조경수 재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자연생 재배 소나무 조경수가 많은 진주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소나무 반출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 방법과 소나무 반출 업무처리등을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1957년생인 김광호 지부장은 부인 구경점(48세)여사와의 사이에 아들만 둘 두었으며 두 아들 다 조경업에 관심을 갖고 현재 학생이면서 농장일을 열심히 돕고 있다.

현재 진주성 로터리 클럽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아 지역발전과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앞으로, 본 농장을 조경수의 재배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학생들의 실습, 실습 현장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를 양묘부터 재배, 굴취, 이식까지 자연친화적으로 환경파괴 없이 산지의 이용 활용에 모범이 되는 농장으로 가꾸고 싶다 한다. 🌳



▲ 묘목생산



▲ 소나무



▲ 수목과 지피류의 재배